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호 【루게 제22986호】 주체99(2010)년 2월 3일(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리계강동지, 리재일동지, 전일춘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수산사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해 정초부터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원평대흥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두차례에 걸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판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수산물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위생문화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어서시어 사업소의 발전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가공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과 각종 수산물가공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자원을 개발리용하여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부리를 보다 증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지난날 쪽매마저 체대로 수리하지 못하던 우리의 수산업이 자립적선박공업을 비롯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현대적인 수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최근년간 과학기술중시로선에 따라 수산기지의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그 위력이 일층 강화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굳건한 수산토대의 축성은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형어업과 중소어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물고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업소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부두건설을 비롯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그마한 수산협동조합으로부터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발

전한 원평대흥수산사업소가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업소에서 생산한 각종 물고기제품들의 선도를 일일이 헤아려보시고 제품의 질이 잘 보장된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와 물고기가공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평대흥수산사업소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면이 바다를 끼

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물고기자원의 변동상태에 맞게 어업조직을 개선하여 철을 따라 밀려드는 회유성물고기를 제때에 잡는것과 함께 연안세어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망후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영경제와 협동경제를 위주로 함께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개인업을 하던 령세어민들이 수산합작사 조직

수산합작사조직

창립: 1961년 3월 18일
 위치: 함경남도 원평군 오도면
 조직수: 8명
 생산수확: 연대합작, 임야, 전야산
 노획: 연안물고기, 연어, 고등어, 문
 생산제품: 연어, 고등어, 문

새민주조선건설로선을 따라

1949년에 진행된 어업
 - 원야에서 협동경제, 민영어업, 협동경제, 협동경제
 - 1955년 신묘향(신묘향)에서 협동경제조직

협동경제의 우월성

생산 29명
 관여생산량
 - 물고기 2500t
 - 연어수입 300000원
 - 연어수입(보통) 750원

중요지표수산물생산정형

지표	단위	1953년
1명	개	1053
2명	개	127
3명	개	210
4명	개	193

어업건수지표

1.8배 상승
 1961년 (150건) 1973년 (269건)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배와 어구의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고기배의 만능화를 실현하여 가동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변화된 어항상태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하자면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선진적인 어구와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어장을 탐색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가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한편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팽동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다자원이 풍부한

어장가까이에 있는 원평대흥수산사업소는 물고기생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전망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애써 마련한 강력한 중공업이 응용을 쓰며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결과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모든 수산기업소들에서 대변혁을 일으켜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원평대흥수산사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고 총진군의 진두에서 편일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산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하노이

월 남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비 서
농 득 마 인 동 지

나는 월남공산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귀당의 전체 당원들과 월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월남공산당의 창건은 월남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월남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월남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조직명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총비서로 하는 월남공산당의 명도밑에 월남인민이 호志明주석의 유훈대로 부강하고 번영하는 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 진행된 우리의 상봉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귀당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주제 99 (2010) 년 2 월 2 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 학생 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 학생 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2일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85돐을 맞으며 1월 22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출발하여 개천, 향산, 전천, 강계 등을 지나 이날 화평군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실은 비행기를 맞이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행군대기발과 붉은기들을 흔들며 우리 학생 청소년들을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고 헌정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선물전달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어린 아버지 장군님의 뜻깊은 선물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이 《광복의 천리길》에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곳곳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행군길을 다그쳐 역사의 땅 포령에 도착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리며 강성대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계승자로 역세게 자라날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